

## 《헤게모니의 미래》

### 헤게모니의 변화로 읽는 국제정치 과거 30년, 미래 30년

서평자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헤게모니의 미래』는 지난 30여 년의 국제정치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제정치를 조망하는 책이다. (서문에서)

지난 30년간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헤게모니” 즉 패권이었다. 다가 올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화두 역시 헤게모니이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나타난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쇠퇴 여부는 가장 중요한 학계 쟁점이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부상하면서는 미국의 쇠퇴 여부와 중국의 부상 여부가 맞물려 미국과 중국 간의 헤게모니 경쟁이 국제정치의 관심 쟁점이 되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오늘날 국제정치의 대표적인 특징을 스트롱맨들이 격돌하는 ‘지정학의 귀환’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현상의 한복판에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파워 대결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이러한 헤게모니 쟁탈전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로, 미중 대결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현인택 교수의 저서 『헤게모니의 미래』는 지난 30년과 미래 30년의 국제정치를 하나의 연계선상에서 읽어 나간다. 그는 거시적 차원의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국제정치의 세심한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한다. 이 책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한국이 국제체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이다. 저자는 제1장 후기에서 국제정치학자를 ‘터널 밖 예언론자’라고 정의한다. 아마도 저자는 국제정치학자들에게 다가올 미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엄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당부하고 싶은 것 같다. 그러나 국제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미래의 문제들이란 대부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가는 혐난한 과제들이다. 마치 깜깜한 터널 안에서 터널 밖을 내다봐야 하는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들이다. 역사는 지나고 나면 다 기정사실이 되어 버리지만 역사적 시점에서 있을 때 미래를 내다보기란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그 미래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지적한 역사적 정점에 서서 문제를 조망하고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함께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문제를 조망함에 있어서 현실에 바탕을 둔,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지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그가 이 책을 써 낸 이유이기도 하다.

『헤게모니의 미래』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헤게모니’라는 화두 하나로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지난 30년의 주요 이슈를 이론적으로, 때로는 정책적으로 다루며 각각의 장에서 별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다만 큰 틀에서 과거 30년과 미래 30년의 연결고리를 ‘헤게모니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은 국제질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반도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유익하다. 지난 30년의 국제정치의 변화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면 미래의 국제정치의 모습은 물론 한국이 가야 할 선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인택 지음 | 2020년 1월 30일 발간  
신국판 | 4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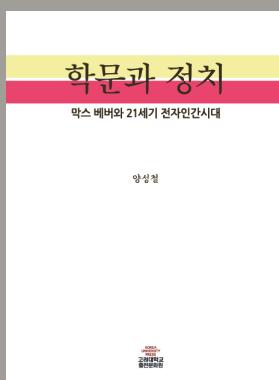
#### 서문

- 제1장 탈냉전의 미지의 세계
- 제2장 새로운 국제정치 담론과 국가
- 제3장 민주평화가 대안인가?
- 제4장 북한 붕괴론의 허와 실
- 제5장 현실주의 대논쟁과 그 이후
- 제6장 동북아 국제질서의 불완전한 변화
- 제7장 북한 핵문제 재조명: 정치한 억제전략
- 제8장 사드THAAD의 국제정치학
- 제9장 빅딜big deal과 미·북 핵협상
- 제10장 헤게모니의 미래

#### 주

#### 참고문헌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학문과 정치 | 양성철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원리 | 문우진

제1장에서는 탈냉전 직후의 국제질서를 다룬다. 탈냉전이라는 미증유의 대격변 속에서 핵확산의 문제, 극단적 민족주의의 발흥, 민주주의의 확산과 퇴조, 민족갈등과 분규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학계의 논쟁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필자는 현실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탈냉전의 구조가 헤게모니 체제의 도래를 가져왔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저자는 탈냉전 세계의 새로운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비관론을 전개하고 있어 흥미롭다.

제2장에서는 1장의 연장선에서 90년대 중반을 풍미했던 주요한 국제정치 담론들을 심도있게 다룬다. 헨리 키신저, 프랜시스 후쿠야마, 새뮤얼 헌팅턴 등으로 대별되는 현실주의 또는 자유주의 대가들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견해들을 분석하면서 주요 국가들이 과연 이러한 새로운 세계의 도래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얼마나 잘 적응했는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내놓는다. 저자는 역사는 완벽한 자유주의적 방향이나 그와 정반대인 전체주의적 방향, 또는 국가를 뛰어 넘는 문명의 충돌 등 극단주의적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3장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정치 주요 담론 중의 하나인 ‘민주평화론’을 다룬다. 저자는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칸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이 주장한 담론들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는 자유주의적 사고의 가장 중심적 패러다임 중 하나인 민주평화론이 유럽의 미래를 설명하는 매우 유용한 이론이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는 2장의 후기에서 현재의 동구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 (populism)이 민주주의와 전쟁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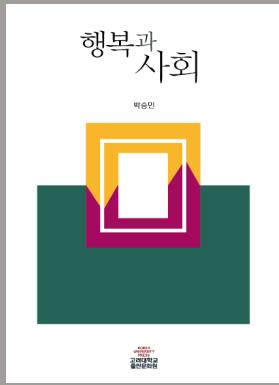
제4장에서는 한반도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와중에 논란이 되었던 ‘북한 붕괴론의 허와 실’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북한체제 위기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에도 북한체제의 위기가 여전히 내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30년 동안 체제 개혁에 나섰던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쿠바 등이 지금의 북한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경제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체제를 개혁·개방하지 않는 북한의 미래가 어떨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지적한다.

제5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 논쟁을 소개한다. 저자는 현실주의의 유용성에 대한 학계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국제정치의 분석 패러다임으로 오랫동안 독보적 지위를 누려온 현실주의가 탈냉전 이후의 국제정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주의의 대안적 패러다임인 자유주의나 탈실증주의 이론 역시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6장에서는 헤게모니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아시아의 미래는 아시아가 개척해 나가는 ‘아시아적 미래’가 될 것이며, 역사의 변증법이 아시아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에서 아시아만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제7장에서는 지난 30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된 북한 핵문제를 조명한다. 저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의 체제공존을 공언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런데 그는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행복과 사회 | 박승민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더 이상 92년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접근은 ‘탈92년 체제’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남북공존전략을 북한체제변화전략으로 수정하는 등 정교한 억제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8장에서는 현재 한중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드문제를 다룬다. 사드는 한국, 중국, 미국, 북한 사이의 ‘중첩적 안보 딜레마’에서 나오는 것이며, 한국의 입장에서 ‘배치’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고 중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역량이 시험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제9장에서는 2018년 이후 전개되어 온 북한 핵문제에 대한 남북한 및 미국의 핵협상의 실체를 다룬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의 정상회담을 다루면서 유일한 해법은 미북 사이의 정교한 빅딜임을 제시한다.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교한’ 빅딜과는 거리가 먼 즉흥적이고 무전략적 빅딜 시도로 핵협상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제10장은 이 책의 결론 부분으로, 책의 제목이 된 ‘헤게모니의 미래’를 다룬다. 저자는 향후 30년 동안은 미국에 의한 헤게모니 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는 30년 이후에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미국 우위하에 유지되는 미중세력 균형체제라고 보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체제의 속성상 한국은 ‘헤게모니 변방국’이라는 ‘지정학적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해법으로 ‘문명 선도국’론을 제시한다. 한국은 이미 고도로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G7에 버금가는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를 선도할 문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미중 헤게모니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은 문명 선도국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경제적 번영을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책은 짜임새를 갖춘 국제관계이론서로서 손색이 없지만, 동시에 일반 독자들이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미래의 선택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개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격변의 세월을 지내온 30년간의 연륜과 남북문제와 통일정책을 주도한 대표적 행정관료로서의 소중한 경험이 가져다준 결과이다.

KOREA  
UNIVERSITY  
PRESS

책과 가까이, 더 넓은 세상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